

opusdei.org

# 오푸스데이 단장 몬시 놀의 4월 29일 메 시 지

5월을 시작하면서 페르난도  
오카리즈 몬시놀께서는 성모  
님의 전구에 의지하며 교황님  
의 뜻에 일치해 기도하도록 요  
청하십니다

2020-5-2

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  
의 딸과 아들들을 지켜 주시기를!

교회가 전통적으로 성모님께 바치는 성월이 시작되려고 합니다. 성모님의 모성적 중재에서, 그 분의 아드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계속해서 전해주기 위한 보호와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성 호세 마리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, 성모님에게 "refugium nostrum et virtus(우리의 피난처이자 힘)"이라고 호소하는 것이, 얼마나 큰 자신감을 줄까요? 지금 전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, 성모님은 우리의 힘이자 피난처입니다.

많은 나라에서, 5월의 시작을 여전히 아무데도 나갈 수 없는 채로 집 안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. 그것은 오히려, 묵주기도나, 또 5월의 순례와 같은 성모신심 관습을 여느 때보다 가족과 함께 실천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성당이나 소성당 등을 물리적으로 방문할 수 없어도 테크놀로지가 가능하게 한 디지털 수단들을 사용해 그 장소들을

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친척  
이나 친구 지인들을 초대해서 동행할  
수도 있습니다.

특별히 이번 우리의 어머니를 찾아  
볼 때에 (역주: 5월 순례), 프란치스코  
교황님께서 4월 25일 서한에서 전해  
주신 뜻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특히  
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그 서한에서  
교황님은 가정에서 묵주기도를 바치  
는 관습을 재발견하도록 요청하셨고  
또한 판데믹의 종결과 가장 고통받는  
이들을 성모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계  
속해서 청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.

애정을 담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.

여러분의 아버지

페르난도

로마, 2020년 4월 29일

---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 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 
opuseudei-danjang-  
monsinyolyi-4weol-29il-mesiji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opuseudei-danjang-monsinyolyi-4weol-29il-mesiji/)  
(2026-1-31)